|  |  |
| --- | --- |
| **시놉시스 1** | |
|  | |
| **작품명과 장르** | 작품명 미정, 장르는 SF, 추리 |
| **배경 스토리** | 2100년대, 문명과 과학은 과거에 기대하던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충분한 성장을 이뤄내 뇌 지도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완성하였고, 이를 이용해 치매 등 뇌질환의 치료가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뇌 이식 연구를 하던 중 직접적으로 뇌를 옮기는 것보다 뇌를 다운로드하여 옮기는 연구가 좀 더 현실성 있다고 보고, 뇌 다운로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
| **키워드** | 뇌 다운로드 연구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아직 연구가 불완성 단계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윤리의 문제가 거슬리자 연구진들은 우선 죽어가는 사람이나 식물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려 하고, 주인공의 부모는 돈이 필요해 식물인간 상태인 주인공을 연구진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  그렇게 식물인간 상태인 주인공에게 뇌 다운로드와 뇌 업로드의 실험을 진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억이 주입된 주인공의 뇌가 거부반응을 크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연구진들은 만족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공이 의식을 회복하고 깨어난다. 깨어난 주인공은 자신에게 업로드 된 기억과 원래 본인의 기억이 섞여 기억에 혼동이 오게 되고, 예상 외의 수확을 얻은 연구진들은 주인공을 속이며 실험을 지속한다. |
| **기획의도 및 주제** | |
| 기억에 혼동이 생긴 주인공이 기억을 찾아 가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이 누구였는지, 진정한 '나'를 찾아가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 |
| **등장인물** | |
| 최소 주인공(성별미정), 예산 상황에 따라 의사, 연구진 등 유연하게 조절가능(주인공 외에 실루엣으로만 대체 가능) | |
| **게임과의 연결성** | |
| 과거의 자신의 흔적들(타인에게 받은 편지라던지 자신의 방 등)을 틀린그림찾기의 그림으로 이용하여 한쪽의 그림은 주인공의 혼란스러운 기억, 다른 한쪽의 그림은 현재의 상황으로 배치하여 달라진 요소를 찾아내 스토리를 진행한다. | |
| **시놉시스** | |
|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서 몇 년간 있다가, 눈을 뜬 주인공. 주인공이 의식을 차리자 간호사가 놀라는 기색을 보인다. 곧 의사가 오고, 기억나는 것을 말해보라는 의사의 질문에 주인공은 기억을 더듬어 이름을 말하지만 두 개의 이름이 섞여 생각나고, 머리가 아파온다. 혼란스러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지켜보던 의사는 좀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돌아오지만, 자신의 기억이 뭔가 이상하고 이질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주인공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기 위해 과거의 자신의 흔적들을 찾기 시작한다.  기억을 찾던 중, 자신에게 두 명의 기억이 떠오는다는 것을 알게 된 주인공은 진짜 자신은 누구인지, 자신에게 심어진 다른 기억의 주인은 누구인지 찾기 위해 기억의 흔적을 찾아 헤멘다. | |